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사람 좋은세상

녹색성장은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길



머릿글 인천녹색성장포럼 대표 박호균

11·12월프로그램

Issue&Seminar

_광주요그룹 회장 조태권

_KT 회장 이석채

CoverStory 환경부 장관 이만의

세상을 보는 눈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이경림

Membership Day

회원&연구원소식

경영essay 부원광학(주) 박춘봉

명사초청특강 국회의원 정동영

발행인편지

정일목칼럼

표지인물 이만의 장관 | 사진 오경근 원장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통권 제96호 [비매품] 등록번호 : 서울 마 03200 발행일 : 2009년 11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편집: 정용달 T. 02-2203-3500(대) F. 02-2203-1974 디자인 페가수스(www.pegasus.or.kr)
주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www.khdi.or.kr (주)광진문화

2009 11·12

‘가람카본’으로 시작한지 30년!

‘카본’, ‘세라믹’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기업, 모간이있습니다.

세계최고의기술력을보유한150년전통의영국 MORGAN GROUP.

세계 40여개국 150여개의 모간그룹 계열사와의 상호기술교류를 통해 카본제품과 세라믹단열재 No. 1의 명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Thermal Ceramics

세계최초 바이오슬루블 웰빙 단열재(친환경)

Superwool, 세라믹 화이버, 세라믹 보드, 파이로 블럭 모듈, 세라믹 코팅, 마이크로포로스, 텍스타일등



Engineered Carbon

첨단 카본분야의 리더

초고순도 및 Glassy Carbon 함침 및 코팅, PTS제품, 카본제품, 실리콘카바이드, Graphite제품, Carbon Felt, Yarn, Cloth & Tape, Arc Carbon, Porous Carbon & Graphite, Graphite Powder 등



Electrical Carbon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산업용 카본브러쉬, 집전자용 카본, 브러쉬 홀더, 슬립링, 산차용 브러쉬 홀더 어셈블리등



Graphite 열교환기

세계적인 흑연 열교환기

Graphite Shell & Tube Heat Exchangers, Graphite Cylindrical Block Heat Exchangers 등



녹색기술이 국가경쟁력이다

박호군 인천녹색성장포럼 대표 / 前 과기부 장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가 심각하여 CO2 배출량은 1970년 대비 80%나 급증하였다. 지난 100년간 기온은 0.74도 급등했고, 해수면은 매년 1.8cm씩 상승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스틴보고서는 기후변화를 그대로 방지할 경우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1929년의 대공황에 맞먹는 충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원부족도 심각하여 원유는 39년, 천연가스는 59년, 석유는 114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조사한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 지수는 조사 대상 15개 국가 중 11위 수준이다. 예상대로 일본(112.8), 네덜란드(111.1), 독일(109.6), 영국(109.0)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97.4로서 15개국 평균인 10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104.3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저탄소화 지수는 88.2로 15개 국가 중 13위로 최하위권이며, 녹색산업화 지수는 102.3으로 8위에 평가되었다.

선두에 있는 일본은 지난해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후쿠다 비전'을 제시하여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현재 대비 14%, 2050년까지는 60~80% 감축을 목표로 기준을 강화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자동차 연비규제를 현재보다 42% 강화하여 35.5마일/갤런으로 높여 실시할 예정이다. EU도 올해 4월 자동차 CO2 배출량을 현재 140g/km에서 2012년에는 130g/km로, 2020년에는 95g/km으로 제한할 것을 EU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프랑스 역시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2010년부터 탄소세를 도입,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으며,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CO2 배출 1톤당 17유로(24.8%)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명목 하에 온실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자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외국기업의 자국 내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5년 실시를 목표로 자동차 연비규제를 강화하여 42.2 마일/갤런의 규제안을 마련 중이며,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선도적인 기술 확보에 따른 기술경쟁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녹색경쟁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경쟁력 제고를 위

하여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카와 바이오 에탄올 차량 보급을 목표로 하는 '그린카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홈 정책',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위해 청정에너지 관련 R&D 비용을 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증액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녹색산업화 분야의 과학기술과 환경경영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 환경경영능력 분야는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8.15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기술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고 집중 육성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 선언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지난 7월, 주요 8개국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효율, 태양광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바이오에너지, 첨단자동차, 고효율 및 저탄소 석탄기술 등의 7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조명용 LED, 자동차용 2차 전지, 고효율 저공해 차량 개발, 원자력 역할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강점이 있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도 있다. 자동차용 2차 전지 분야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은 BMW와 GM에 납품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향후 세계시장은 녹색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다행히 녹색기술 분야의 기술경쟁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선진국과 격차도 크지 않다. 21세기에 녹색산업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낼 것이다. 오늘도 나는 녹색선진국을 그려본다. **KHDI**



박호군 대표

1947년 생으로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이학 석사, 오하이오주립대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과학기술부 장관, 인천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녹색성장포럼 대표 및 (사)과학관과 문화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11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조찬세션
A

“녹색경제와 경쟁적 클러스터”

이번 강연은 ‘경쟁적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과 녹색 클러스터, 청정기술(clean tech) 클러스터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스탠포드 프로그램-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영역(Stanford Program on Regions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은 10년이 넘도록 연구되어 왔으며, 도출된 가장 주요한 결과물들이 본 토의를 통해 소개될 것이다. 거대한 청정기술영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리콘밸리의 진화 역시 사례로 제시된다.

윌리엄 밀러 박사는 퍼듀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후, 아르곤 국가연구소 수확부 디렉터로 기초원자물리학과 컴퓨터공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컴퓨터공학부에서 SLAC(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라는 그룹을 이끌었고, 부총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기술공학면허를 만들어 타 대학과 해외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처음으로 중국인 학생들을 채용하기도 했다. 인터넷서널 SRI의 회장이자 CEO로서 태평양에도 SRI를 건설, 그 이후 SRI에 소속된 연구소인 David Sarnoff 연구소의 회장도 역임했다.

1982년 국가과학이사회와 국립학술회의의 일원이 되었으며, 1990년 인터넷서널 SRI에서 은퇴하고 스탠포드대로 돌아와 실리콘밸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SmartValley, Inc.를 공동설립하고 부회장으로 지냈다. 또한 싱가포르 과학과 기술 이사회 해외토론자로서 참석했고, 현재는 말레이시아의 Multimedia Super Corridor 국제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싱가포르 외에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에서 기술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했다.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
미국 스탠포드대 석좌교수

조찬세션
B

“2020 일터 : HRD의 사회망을 활용한 인재발전”

이번 강연은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질 HRD의 세 가지 거시적 트렌드를 알려주고, 창조적 지식맵을 활용함으로써 HRD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본 세션을 통해 구축한 콘텐츠는 윌리어드 박사의 하버드 경영대 블로그에 게재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혁신 체계를 공부하고, 어떤 주제에도 사용 가능한 지식맵을 체험해볼 것이며, 현재 HRD를 잘 활용하고 있는 3대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캐리 윌리어드 부사장은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SLS(Sun Learning Service)에서 직원, 소비자, 동업자의 사회적 학습을 책임져왔다. SLS경영은 Solaris, Java, 그 외 Sun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150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SLS 교육은 60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윌리어드는 2005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수석부사장에 취임하여 12개의 서로 다른 교육과 연구 업적들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온라인교육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캐리 윌리어드(Karie Willyard)
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수석부사장

창의적 연구환경

제1621회 11월 1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핵심인재 = 경쟁력’이란 공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다.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과학기술 분야에도 이런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지켜내려는 인재경쟁은 중요한 부분이다.

인재경쟁시대에 한국 과학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과학 인력의 정년제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뒤처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실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제도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해 왔고 연구원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렸다. 이는 결국 우수인재의 연쇄적 이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실험실 속 과학기술’은 대중과의 소통 부재를 낳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대중과 동떨어진 기술이 되어버렸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출연 연구소의 만형 격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이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과 과학의 대중화를 표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최초의 외국 국적 원장으로 화제가 됐던 KIST의 한홍택 원장을 모시고,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란 주제로 21세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와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홍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공학 석·박사 | 미국 공군재료연구소 연구원 | 워싱턴대 교수 | 학술지 Journal of Composite Materials 편집장 |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 |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기계항공학과장 | 미국복합소재학회 회장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 미국 공군과학연구소 IPA프로그램 매니저 | 미국 세계복합소재위원회 위원장
(상훈) 제9회 호암상 공학상 외
2006년 프랑스 공로훈장
(저서) 이제는 유럽이다

한국 - 인도 협력방안과 세계화의 길

제1622회 11월 1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1세기 ‘아시아의 시대’에서 핵심은 친디아(Chindia)라고 일컫는 중국과 인도다. 양국은 인류문명 발상지로서의 자부심, 엄청난 인구, 빠른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바탕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디자인과 패브릭, 우주선 및 위성발사 등에서 세계 6위권의 선진국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의 우주선 ‘찬드라얀(Chandrayan)’이 달의 궤도를 돌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핵보유국이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도는 최근 BRICS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함으로써 12억 인구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인도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간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시장에서 인도 전문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스칸드 란잔 타얄 주한 인도대사를 초빙하여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인도시장을 선점하게 된 한국이 국제시장에 미칠 여파와 현 시대가 인정하는 인도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스칸드 란잔 타얄 (SKANAD RANJAN TAYAL) 주한 인도대사

인도 알라하바드대학교 졸업 | 인도 칸푸르 소재 인도 공과대학 화학 전공 | 인도 외무부 유엔과, UNESCO 담당관 및 인도위원회 사무총장, 외무부 영사, 여권 및 비자과 담당관 | 인도 중앙여권기관 최고 여권담당관 | 소피아, 바르샤바, 제네바, 모스크바 인도 공관 근무 | 요하네스버그, 휴스턴 인도 총영사 | 駐우즈베키스탄 인도대사

나눔과 배려

제1623회 11월 2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랄프 에머슨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은 그대에게 봉사할 것이요. 만약 그대가 한 평생을 걸고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면 아무리 교활한 사람일지라도 그 보상을 그대에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드라마 ‘태조왕건’, ‘해신’, ‘대조영’ 등에 출연하며 국내 최고의 탤런트로 불리는 최수중은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GoodNeighbors)의 친선대사 등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나눔의 씨앗을 심어온 1등 나눔인이기도 하다. 그는 1999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동포애를 전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올해는 네팔 자원봉사를 다녀왔고, 탤런트인 부인 하희라와 함께 캄보디아 자원봉사를 다녀온 뒤에는 곧바로 태안반도를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굿네이버스에 1억원의 저소득 결식아동 지원기금을 전달해 저소득 아동들의 교육장학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꾸준히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방송인으로 바쁜 활동 중에도 사회 곳곳에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수중 굿네이버스 친선대사를 초빙하여 나눔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수중 방송인

1987년 KBS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 | 드라마 ‘질투’ ‘아들과 딸’ ‘태조왕건’ ‘해신’ ‘대조영’ 등 출연 | 한국방문의 해 명예 홍보사절 | 보건복지부 · 한국복지재단 ‘잃어버린 가족 찾기’ 명예홍보대사 | 제2기 환경부 환경홍보사절 |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상훈) KBS 연기대상 대상, MBC 방송대상 최우수 연기상, 한국방송대상 탤런트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외
(저서) 너에게만 말해 줄께, 최수중의 아버지일기 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12월

국가발전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제1624회 12월 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했다. 이제는 '선진 일류국가'의 문턱에서 경제·사회의 질적 향상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밝은 미래만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의 초석이자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서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져 품격있는 사회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이 '낮은 정도'의 법치주의에 있다고 보고, 법치주의의 확립이 선진국 진입의 조건이자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그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 국민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는 감사, 열린 마음과 상대를 배려하는 감사를 목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해 질 높은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와 국민 앞에 떳떳함은 물론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4년간 법관으로 봉직하고 2008년 9월, 21대 감사원장에 취임한 김황식 감사원장을 초빙하여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위상과 국가발전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황식
감사원 원장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독일 마르부르크필립 대 수학 | 제14회 사법고시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장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관

페르시아 역사에서 리더십을 배우다

제1625회 12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인류의 역사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역사는 진귀한 지식창고와도 같다. BC590(~580) 메디아(또는 페르시스)~529경 아시아에서 아케메네스 제국을 창건한 정복자이자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에게 해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근동지역을 포괄하는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대왕은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백성의 아버지로 불렸던 인자하고 이상적인 군주였다. 또한 성서에서는 바빌로니아에 잡혀 있던 유대인들의 해방자로 기억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자본, 기술, 원자재 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와 그 관리자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자질있는 리더에 의해서 가능하며, 뛰어난 리더십이 조직과 사회발전의 요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위기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리더십은 달리보다 더 고갈되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언급되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대 종교학과의 배철현 교수를 초빙하여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제국건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의 리더십을 오늘의 경영에 접목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연세대 신학과 졸업 | 미국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석사 | 미국 하버드대 고대근동학과 석·박사 |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서울대 종교학과 부교수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겸무교수 | 서울대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AFP) 부주임



조 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미국 뉴욕대 경영학 석사 | 한양대 경영학 박사 |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중소기업정책관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차관보, 차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기술경제학회 부회장 |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상훈〉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저서〉 한국, 밖으로 뛰어야 산다

한국, 밖으로 뛰어야 산다

제1626회 12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현재의 경제위기는 세계의 경제 및 권력 지형을 재편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의 암운이 짙게 드리웠던 지난 2008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 끼어서 수출 강국의 위치를 위협받는다는 이른바 '샌드위치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KOTRA의 조환익 사장은 한국 경제가 오히려 불황기에 강하다고 하는 이른바 '역샌드위치론'을 주장한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데다, 제조업의 기술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포화를 뚫고 중동의 바이어를 찾아다닐 만큼 적극적인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마케팅에도 작용해 우리만의 단단한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사는 줄에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8년 KOTRA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잡자는 조직을 순식간에 활기가 넘치는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시킨 조환익 사장을 초빙하여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지역이 어디인지, 글로벌 강자가 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각각 갖춰야 할 역량과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2009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CEO 파티에 초대합니다



일시 : 12월 22일(화) 오후6시 30분

장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문의 : 인간개발연구원(02-2203-3500)

* 상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1614회 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9월 24일(목)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 한식문화의 세계화

조태권 광주요그림 회장



어머님께서도 도자기를 주시면서 “도자기는 깨지는 것인데, 그것을 깨지지 않게 소중히 다룰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집안도 네가 어떤 문화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도 도자기로 밥을 먹이고 조심스레 치우게 가르쳤고 그런 정신이 내게도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깃들어 있어

88년 부친이 타계하고 가업승계를 하면서 우리문화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 세계를 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도자기와 음식, 음식과 술, 식문화와 술, 식문화의 술과 국민의식, 식문화의 술과 국력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식당이라는 그 자체가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집합된 곳이고, 그 국가의 품격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체험과 홍보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동안은 음식이 1차적 생존수단이었지만 제사와 같은 상징으로서의 음식,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 하는 의미로서의 음식, 전쟁과 평화, 북

한 식량지원 등 무기로서의 음식, 차별화된 자기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역량의 척도로서의 음식 등 여러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으로서의 음식이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모범이 되는 것을 전달하고 학습시킨다.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집안의 정체성, 예절 등 모든 것을 논하게 된다. 이제는 교육도 생존수단이다. 21세기는 문화 자체가 생존수단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세계화시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며, 앞으로 그것이 후세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5천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들의 아름다움을 미덕으로 이야기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20억명의 대중은 맛있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라 어떤 이미지와 문화가 있어야 쏠아간다. 이 때, 서민적인 아름다움을 미덕으로 한다면 우리 문화는 영원한 이유가 되고 만다.

한국의 식문화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 식문화는 양반문화와 서민문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둘 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양반문화는 집안의 종가문화로 특화되어 이어져 내려왔다. 그들 집안만의 문화라고 생각해서 비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문화이지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서민들은 과거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조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통이란 족쇄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향토문화로서만 존재한다. 이질화되어 융합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음식점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단일품목으로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다 보니 가격을 낮추고, 푸짐하고 싸고 맛있다는 식당들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가치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을 한 것이다.

우리의 또 하나 문제는 요정문화가 식문화를 다 거덜나게 만들었다. 여기서 한상차림이 나온다. 요정에서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옆에 앉는 것이 더 문제로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요정에서 10만원 이상 가격이 나와도 토를 달지 않는데, 한식당에서 10만원이라고 하면 한식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한다. 이런 문화로는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이런 실정에서 겉으로는 모두 다 서민적인 생활의 아름다움을 미덕으로 삼고 합리화시키는 한편, 우리는 이런 와인을 마셔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신분의 척도로 삼고 있다. 왜 일식당이나 중국집에서 30만원씩 하는 음식값을 지불하고는 뿌듯해하면서 한식집에서는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우리 국민이 키울 수 있는 손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온 국

민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음식에 가치 부여하면서 세계화 이론 일본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으나 공산당 30년으로 문화가 죽어버린 중국음식의 세계화를 보자. 이들에게 홍콩은 구세주였다. 홍콩은 1960년 2차 대전 이후 영국이 조차한 50여년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돈을 벌까'를 고민하면서 관광도시로 만들자고 생각했다.

작은 어촌에 세계 최고의 호텔을 만들자, 세계 최고의 제품을 싸게 팔자,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 이것이 영국인들의 수준에 맞는 중국을 재탄생시킨 배경이다. 만다린호텔, 페닌실라호텔 주변에 엄청난 음식점들이 생겼다. 영국인들이 만들다보니 세계적인 수준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유명배우들이 쇼핑을 위해 몰려오는 등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홍콩식 차이니즈라고 하는 6천만 화교가 문명화되어 엄청난 교육열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가장 발달된 모습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단축을 이루었고, 지금은 완전한 신세계로 변했다. 찬란한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백제에서 가져간 문화가 대부분이었던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베이스가 같지만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일본인들은 전략적인 산업으로써 식문화의 가치창조를 생각했다.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음식의 유신이 일어났다. 왜소한 몸과 체력을 키우자며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1200년간 금지해 왔던 육식을 허용했다. 군사문화를 밥에서 빵으로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국화시키는 노력을 했다. 돈까스는 독일에서, 튀김은 포르투갈에서, 라면은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 한편 서구문화를 가지고 와서 카레라이스, 비프까스처럼 밥을 중



심으로 절충안을 만들었다.

이후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화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선이다.회는 지중해에서도 먹긴 하지만 인기있는 음식은 아니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은 “길들여지면 세계의 음식이 되는 것”이라며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워갔다. ‘스시’를 포장하는 총체적인 문화를 최고급으로 포장했다. 결국 이것이 0.1%만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중적인 문화가 되도록 승부사를 키우는 것이고 브랜드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젓가락질이 서툰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스시를 세계화시킬 것인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젓가락을 버리고 손으로 먹게 만들고, 그 옆에 가장 비싼 물수건으로 연출했다. 결국 지금은 스테이크보다 훨씬 비싼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 기모노를 포함한 의식주에 압도당하도록 일본을 이미지화시키고 상품과 연결시킨 것이다. 음식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도요타와 같은 기업들이 접대가 필요할 때 스시로 접대를 하는 등 기업들이 모두 투자해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회전스시 5볼, 10볼짜리 음식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에서부터 대중음식점부터 진출했다면 절대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치나 떡볶이를 세계화하자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나무다. 그 나무를 일본문화에 심어버리면 일본의 문화로 왜곡되어져 우리 문화의 아류가 되고 가치를 잃어버린다. 일본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일본은 일주일에 한번씩 한식 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 2010년까지 일식인구 12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5가지를 먹는다고 해도 60억명분을 먹는 것이다. 10볼이면 600억볼이다. 한식을 자기 식당에 옮겨놓고 12억명이 10가지를 먹으면 12억명분, 10볼로 계산하면 1200억볼이다. 식당 하나의 매출이 3억이다, 5억이다 하지만 모이면 엄청난 돈이다.

그 베이스를 어떻게 깔 것인가가 산업화의 길이다. 일본은 두부라는 평범한 음식을 명품으로 만들었다. 일본타워 앞에 있는 우까이라는 음식점은 2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의식주를 보여주며 특별한 컬러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인식시킨다. 식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일본문화의 우월성에 위압당하고 만다. 방안에는 유리, 목공, 금속 등 모든 공예분화가 살아 숨쉰다. 그들은 음식 문화 하나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장인이 점차 사라진다. 옹기를 만드는 사람도 밥벌이가 안 되고, 장인이라고 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극복되지 않는다. 그만큼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성공사례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다.

일본은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가치를 창조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밥상머리 교육은 사라지고 있다. 성공사례들을 보면 결국 전통에 근거한 디자인적, 미학적인 요소들을 재발견해서 고급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 마음을 음식에 담아 한식의 세계화 이룰 때

우리는 한식의 세계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다섯 가지 마음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시인은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따라 생각하고 꿈을 꾸고 행동한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달라진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훈련된 마음(Disciplined Mind)을 가져야 한다. 음식을 산업화하려면 요리사뿐만 아니라 의식주가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차별화 된 옷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종합하는 마음(Synthesizing Mind)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편집하고 좋은 것을 뽑아내야 한다. 그 다음 창조하는 마음(Creating Mind), 새로운 가치와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이다. 그 다음은 존중하는 마음(Respectful Mind)이다. 그래야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윤리적인 마음(Ethical Mind)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상상과 창조를 기를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줘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이런 다섯 가지 마음이 없다면 세계 일류국가는 요원하다.

2007년도, 나파벨리에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과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음식의 가능성을 알리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우리가 내놓은 최고급 음식은 도자기와 함께 하며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 랍스터 떡볶이도 선보였는데, 떡볶이가 5만원 10만원짜리 요리로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잡채는 공짜로도 많이 먹는 음식인데, 그런 잡채로는 세계화가 힘들다. 가장 가치있는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것이 수출의 극치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식 중 하나가 삼계탕인데, 자꾸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제 그 가격을 올려야 한다. 우리는 홍삼을 넣은 삼계탕을 ‘홍계탕’으로 이름 붙여서 30만원짜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정착해서 북경에 있는 가온에 홍계탕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즐거움이다. “홍계탕 먹어봤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신분의 척도가 되도록 만든다면 우리 문화는 성공할 수 있다. 1만원짜리 음식을 2만원 3만원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식의 세계화는 가능해진다.

한국음식의 산업화는 여러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달려있다. 우리 음식도 키우면 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식문화도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기현**



IT의 미래, Convergence

이석채 KT 회장



1995년 12월 21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당시 미국에선 앨 고어 부통령이 '초고속 정보망을 국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유럽에선 GSM, TDMA방식으로 디지털 무선전화 시대를 열었던 시기였다.

변화는 싸움이다

당시 한국의 꿈은 '우리가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뒤쳐지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다. IT분야의 수출액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아무 것도 없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대안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그것을 주관할 부처도 없었다. 정통부가 출범은 했지만 내부에 아무런 조직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IT경쟁력에서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타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 무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휴대폰과 관련된 통신장비가 '0'이었던 국가에서 10년도 안 되어 세계 최고수준으로 오른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정통부 장관으로서 그런 역사적 트렌드를 일으키려고 애를 썼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시켰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 정책의 조화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일궈낸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트렌드를 읽고, 주도하기 위해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키아가 판매율이나 이익 면에서 다른 업체를 압도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과 LG가 약진하고 있다. 애플의 성장은 더 무섭다. 애플이 제조업에서 강하게 대시하리라고는 삼성도 노키아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차이인 것이다.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항상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른다. 우리가 초창기 오명 부총리 주도하에 교환기방식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꿨을 때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변화를 이루어 냈다. CDMA, 디지털, 인터넷 등도 여러 면에서 변화가 쉽지않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당사자인 기업들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반대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당시 그 분야 1위 업체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거부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도 기존 대형 건설사에서는 모두 반대했다. 다행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삼성건설이 받아들여 오늘날 단시간에 미국보다 먼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컨버전스,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처졌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또 하나의 변화가 온 것이다. 기존에 변화한 것, 인터넷시대를 열었던 것 가지고

는 한국의 성장엔진을 더 이상 발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남은 엔진이 소프트웨어산업인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일으킬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이 분야의 진출을 꺼려한다.

그럼, 여기서 한국의 IT가 끝날 것인가? 다행히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이미 왔고, 오고 있다. 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소위 융합이라고 하는데, 컨버전스는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융합의 시대가 온 것은 이미 4~5년 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최근에 와서이다. 방송융합과 관련한 IPTV가 허용되었는데, 아직 제약이 많다. KT가 유무선통합시대를 맞아 조직정비라는 내부문제를 2년 여간 끌어오다 내가 와서 비로소 타결이 될 정도로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 앞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저항을 극복해 나가는 단호함이나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융합의 시대라는 것은 그 깊이나 폭이 엄청나게 넓다. 노키아의 시장점유율이나 이익률이 떨어지고 삼성이나 LG가 약진하고 있는 것은 변화의 트렌드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또 다른 대상은 구글이나 애플이다. 이처럼 컨버전스 시대는 혼란의 시기이고, 적과 동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시기이다.

인터넷전화의 경우도 약 480만 정도가 가입했다. 그런데 가입자의 반은 케이블TV 업체와 삼성그룹이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케이블업체가 통신업체와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KT 같은 통신업체로서는 고난의 시대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서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지려면 버려야 한다

GM과 AT&T가 왜 몰락했을까? 일본의 통신업체나 IT업체가 지금은 왜 한국보다 처지는가? 기득권,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는 불가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내 캐시 카우를 버린다는 각오로 출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GM의 경우 미국에서 SUV가 비교적 경쟁이 적었고, 에너지소비는 많았지만 부가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다가 결국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고객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AT&T는 한 때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 중 하나였다. 그리고 루슨트테크놀로지의 경우는 언젠가 큰 컴퓨터시대, 큰 교환기 시대가 끝나고 무선통신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KT도 그렇다. 지금 유선전화에도 분명히 변화가 왔다. 인터넷전화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하나의 통신 수단이 되고 방송수단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KT도 여기에 합류해 부가가치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캐시 카우가 유선전화 PSTN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터넷전화의 공격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PSTN을 유지할 지에 급급했다. 마치 서서히 달아오르는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살마'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KT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과감하게 VoIP로 넘어가자는 결론을 냈다. 그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VoIP는 망을 깔아놓고 인건비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다. 그 때부터 KT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KT의 더 큰 고민은 최근 수년간 매출액이 11조대에서 사실상 줄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출이 줄면 인건비도 함께 줄어야 하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명목상 외주비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의 경우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직원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호봉제를 노조와 협의해 전원 연봉제로 바꾸었으며, 차별화 된 성과급 체계를 구축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교육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모티베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문제다.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면 KT는 트렌드에서 지는 것이다. 미래의 싸움은 애플이나 구글과도 경쟁할 수 있고, 제조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KT와 SKT의 경쟁, KT와 LGT와의 경쟁이 아니라 SK그룹, LG그룹, 또는 외국 어느 그룹과의 경쟁이다.

우리가 그들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협력하는 협력업체군, 중소기업군이 우리와 똑같은 애정을 느끼고 공동이해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olleh~ 하는 그날까지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이제 KT는 'olleh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초등학교생이나 휴대폰이 생계수단인 분들에게는 비싼 요금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밖에서는 휴대폰을 쓰고 집에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전화를 사용하라고 권한다.

인터넷전화는 요금이 거의 공짜다. 이게 바로 컨버전스 시대 KT와 KTF의 첫 작품이다. 이것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의 전형으로 KTF로서는 자기 수입원을 상실하는 일이었지만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다.

이제 무선데이터통신시대가 열린다. 무선데이터통신이 활발해지면 데이터요금이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봐도 무선인터넷 요금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KT는 데이터요금을 88% 인하했다. 이게 바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다.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GM이나 AT&T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도박일 수도 있지만 KT가 살 수 있는 길은 트렌드를 먼저 수용해서 앞서 움직이는 것이다.

또 하나가 3W폰이다. 3W폰의 대상은 주로 대학생들이다. 이들에게 휴대폰은 필수품이고 많은 양을 쓰지만 통신요금이 늘 부담스럽다. 3W폰은 휴대폰인데, 기존의 3G 네트워크, 와이브로 네트워크, 와이브로와 연결시키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와이브로는 통신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다. 삼성과 개발해서 곧 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컨버전스가 하이브리드로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다. 위성통신이 갖고 있는 선명함, 위성통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VOD로 보완하는 것이다.

비록 KT가 터널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금년 이익을 1조8천억 이상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에게 'IT라는 게, 통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느끼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새로운 일감을 찾게 할 것이다. 그 꿈이 실현될 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KT직원들이 과거와 달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녹색성장은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길

저탄소 녹색성장 전도사 이만의 장관



사진_오경근 원장

“행복의 본질은 삶의 주체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 근거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도 환경의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인간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만의 장관은 인터뷰 서두에 이같이 말했다.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길, 사실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 성장에 배경을 두지 않고서는 회자될 수 없는 논제다. 또한 경제적 성장은 환경의 보존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화두다. 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분주하다. 환경의 위기, 경제의 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답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다.

이만의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도사를 자임하며 강한 추진력으로 각종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부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학습하는 기쁨을 멈추지 않는 이만의 장관.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를 만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랜 공직생활 끝에 얻은 삶의 지혜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만의 장관

1946년 생으로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세대 행정학 석사, 동국대 박사과정 등을 거친 학파로 잘 알려져 있다. 내무부 새마을기획과장, 세정 및 재정과장을 거쳐 전남 여천시장, 목포시장, 제주 부지사, 광주 부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선 행정경험을 쌓았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지원국장, 인사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고,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행정비서관도 역임했다. 환경부 차관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2008년 3월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다.

**장관님께서서는 스스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도사를 자처하시는데
요, 이에 대해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거죠. 한국은 환경을 국정의 핵심가치로 천명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된 겁니다.

녹색성장은 인류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자원난시대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유엔에서 처음 주창한 것은 지속가능성에 비중을 둔 녹색경제였죠.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꿈이 없는 사람과 같아서 동력이 상실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면서 환경과 형평을 가져야 하고, 양질의 성장을 이루면 환경분야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확산을 가지고 역사적 당위성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환경위기, 경제위기를 오히려 위기 극복 이후에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공격적인 자세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또 하나는 변화된 지구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삶, 국제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양쪽 모두 환경산업, 환경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이고, 그 배경에는 기존 기술의 융합 특히 IT의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그런 레볼루션이라고 하면 농업혁명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환경혁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술혁명과 생활혁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술혁명은 교육과 함께 당연히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생활혁명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이 대단히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을 통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전략적인 삶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녹색성장을 뒷받침할만한 환경부의 정책적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된 이후 환경부는 소관 정책 영역에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 과제 및 사업을 종합한 실천계획을 부처 최초로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기술 및 산업 육성, 녹색일자리 창출, 생활환경정책 등 10대 정책방향 및 49개 실천과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동안 환경부는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생태관광활성화, 범국민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 핵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과 같은 녹색성장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왔습니다. 동시에 다른 부처의 계획과 정책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성 평가 및 정책협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R&D 등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던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하고, 장기적 정책방향과 향후 5년간의 행동계획, 재정계획을 체계화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아져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한 후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 지난 10월 개최된 2009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개념은 확실해졌죠.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한 것까지는 순조로웠는데, 녹색성장기본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녹색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 국가적 패러다임으로 정해놓고도 추진체계가 뒤따르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상업, 교통, 공공 등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43%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가정, 직장, 학교, 유통매장, 군부대 등 10개 부문 80개 실천사항인 '녹색생활의 지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걷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제품 구입, 물절약, 쓰레기 재활용, 올바른 운전습관, 플러그 뽑기, 적정량의 음식물 제공 등이죠.

이러한 실천 수칙이 국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녹색생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행동패턴을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에 전국 17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절약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에 포인트를 부여해 감축실적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접 되돌려주는 제도죠.

이와 함께 '탄소성적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품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겁니다. 현재 68개 제품에 탄소성적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인데요. 연료절감은 기술혁신을 전제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설비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새롭게 인력배치를 해야할 수도 있죠. 때문에 내부저항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기업이나 대기업은 앞서가고 있는데, 민간중소기업들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정책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으로써 가장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청정산업, 첨단산업 등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시장의 녹색일자리 수요가 창출돼야 합니다. 정부는 녹색기술 개발, 녹색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녹색화 등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시장의 녹색일자리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가 기술자격제도 정비, 전문대학원 육성 등 미래 인적자본을 확충하



▲ 지난 9월 8일 열린 녹색생활 실천협약식

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이 당장의 해결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지난 8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는데,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축 목표가 확정되면 부문별 감축방안을 세밀히 검토할 계획인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적 기반 하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산업 및 비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비산업 부문은 비교적 감축비용이 적고 감축 여력이 있어서 산업 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관리체계 마련, 에코드라이빙 확산, 그린카 보급,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 해외 진출 도모,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환경친화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확충 방안도 큰 관심사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최근 기후변화와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고효율 친환경차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카 4대 강국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그린카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린카 보급의 주무부처로 2013년까지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등 총 13만대의 그린카를 보급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감면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천연가스 충전소 구축 지원사업과 함께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엔진개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등 그린카 관련 핵심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D 투자 규모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역할을 규정짓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4대강이 홍수에 안전한 하천, 생태문화가 살아 숨쉬는 하천, 상수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하천,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되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거죠.

수생태계 현황자료와 자연환경조사 결과 등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평가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검토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에도 환경부 예산 3.9조원을 투입해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가뭄 피해지역에 관정을 시설하고 상수도를 확장 보급하는 사업을 펼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장지대가 많고 대도시가 인접한 낙동강 수계에서는 하천 유지수량이 줄만큼 가뭄이 지속되면서 결국 어떤 법정 기준도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천이 적정수량을 확보해야 법정 기준으로 방류했을 때 스스로 자정이 되는데 유지수량이 없으니 모두 위법이 되는 겁니다. 낙동강 다이옥신 사건도 같은 이유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물 문제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을 비축할 수 있는 곳은 댐과 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댐 건설에 상당히 부정적이죠. 지난 10년간 새로 건설된 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강인데, 강에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강바닥

을 파서 퇴적토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보를 만들어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제방을 보강해 늘어난 수량의 압력을 막고,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하천구역 내 경작지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의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고, 그 다음 단계가 환경부 사업입니다. 수량 증가에 따른 수질개선과 수생태복원 등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누구의 일인가를 따지기 전에 물문제의 심각성을 상기한다면 범정부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토목사업을 찬성한다고 비판하는데, 이것은 전체를 보지 않는 데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목공사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수질개선, 수생태복원 등 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공사의 규모만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4대강 사업은 '보'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현재 75%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2급수) 달성률을 2012년까지 83~86%로 제고하고, 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생태계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등 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할 겁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질은 유량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동안 주기적인 봄철 갈수기 수질악화에도 항상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어려워 위 문제 해결이 힘들었습니다.

▼ 지난 10월 28일 낙동강변에서 열린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된 물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 갈수기에도 사용함으로써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하천에 비로 등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하천구역 내 경작지가 정리되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요인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간 부족한 재정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수질개선사업도 집중 추진하게 돼 '좋은 물' 달성비율 목표를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4대강사업은 수질환경개선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수량과 수질을 연계해서 관리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며, 수질환경 개선과의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대학원 졸업, 환경부 차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 환경 분야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내무부에서 공무원을 선발해 대학원 학업을 지원해줬어요. 행정대학원과 환경대학원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72년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에 입학했죠.

발전이라는 것은 환경을 가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연을 많이 가공하면 도시가 되고, 가공하지 않으면 농촌이 되는 거죠. 또 조금만 가공하면 소도시가 됩니다. 이런 걸 느끼면서 도시와 환경 쪽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건 석유화학 단지가 모여있는 전남 여천시장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공단의 공장장들 대부분이 공과대 출신들이었는데, 그들과 친분이 쌓이면서 각종 환경조사와 측정을 하면서 환경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죠.

사무관 시절, 해외홍보 업무를 맡으면서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허만 칸(Herman Kahn)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때 기억나는 것이 칸 박사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결국 환경문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치유책이 없어 상당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분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당시 업무 특성상 외국 장차관은 물론 세계적인 학자들을 만나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직에 입문하신 지 38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철학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한번도 제 근무평가에 대한 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채 지냈습니다. 단지 주어진 일에 몰입해 일을 즐겼을 뿐이죠. 내 무부에서 과장 승진할 때는 장관께서 직접 승진 지시를 내렸는데, 알고 보니 근무평가가 모자라서 1년을 기다렸다가 승진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리도 안 했던 거죠.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 '공직자는 한 개의 얼굴만 갖자'는 겁니다. 국민을 대하거나 상관을 대하거나 늘 한 가지의 얼굴을 유지하는 거죠. 공무원 최고의 가치는 '정직'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얼굴, 남이 보는 자기 얼굴, 절대자가 보는 얼굴 등 3개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얼굴로 산다면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얼굴과 절대자가 생각하는 얼굴이 같아지고 그것이 공직자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존경과 인정, 사랑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공직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원한다면 공직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공직생활 중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권력이나 자리를 이용하려고 하면 분명 탈이 나

게 마련이죠. 그리고 국민이 칭찬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가 흑심을 가지고 칭찬하는 경우 그 유혹에 빠져 뒷에 걸리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공무원은 머리를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머리를 굴리다 보면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결국은 고객인 국민을 사랑하게 됩니다. 머리를 굴리는 최소한의 수단이 공부하는 거죠.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국장을 하려면 한 개의 박사 학위보다 3개 분야의 석사 학위를 따고, 장차관이 되고자 한다면 5개 이상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따라고 합니다. 시장의 다양성을 감안해 지식의 저변을 넓혀야지 한 분야에서만 성취를 이루는 것은 이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인적자원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길 또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에 달려있어요. 그런 점에서 연구원이 하고 있는 교육사업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한국에 댐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댐이 오래되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썩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이후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금 댐처럼 변

하고 있어요. 인사교류가 되지 않으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썩고 있는 거죠. 인사권자에게만 신경 쓰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발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소통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심각한 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댐의 썩은 물을 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댐 바닥에 배출구를 만들어서 퇴적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댐에 화학적 기능을 지닌 물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 속에서 폭발하면 물을 흔들어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물은 정화되죠.

연구원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사업은 화학적 물질을 포함한 폭탄을 집어넣어서 산소를 공급해 물을 살려내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의 전문성을 강화한 작지만 성능 좋은 폭탄을 집어넣는 교육과 공직집단이나 지역사회에 큰 폭탄을 넣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 이만의 장관과 정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아동!

이경림 (사)부스르기사랑나눔회 대표

2009년 올해는 빈곤아동을 포함한 세계 모든 아동에게 의미 있는 해이다. UN에서 전 세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약속한지 20년이 됐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아직은 미흡

아동권리협약(CRC)은 아동이 성인들의 소유이며,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던 관점에서 아동 역시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한 아동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지켜주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아동의 생존, 보호, 참여, 발달권 확보를 위해 부단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아동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제도와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아동은 아직도 정책적 우선순위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예산은 전체 예산의 0.9%에 불과하며, 노인복지예산은 아동복지예산의 17.9배가 많다는 통계자료를 봐도 알 수 있다. 아동과 관련된 적극적 사회적 투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능동적 복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랜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1달러의 현재적 투자는 7.14달러의 사회적 환원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령화의 사회문제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태어난 아동들을 건강하고 주체적이며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사회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국가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 투자임에 분명하다.



글 이경림 대표

1963년 생으로 건국대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며, 강남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빈곤아동, 결식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결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기업의 거버넌스 개념의 참여적 복지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부스르기사랑나눔회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며, 강남대 사회복지대학 겸임교수,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지문위원, 빈곤소외계층 교육·복지지원사업 '1318해피존', 보건복지가족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국회 빈곤퇴치포럼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www.dreamfull.or.kr
02-365-1265

빈곤아동 144만명 시대

2009년,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이유로 빈곤아동이라고 불리는 아동의 수는 전체 아동인구 대비 상대적 아동빈곤율로 조사했을 경우 12.6%로 약 144만명이 존재한다.

이중 당장 오늘 저녁밥을 굶어야 하는 절대 빈곤아동은 89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 외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가족기능의 약화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가구경제 불안 등이 아동빈곤의 주요요인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아동빈곤율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아동 10명 중 한 명은 생존?보호의 발달 권리를 침해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없는 아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아동들은 권리나 최선의 이익 등 거창한 것은 모르더라도 이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 저녁을 굶지 않는 것, 배고프지 않는 것, 학교 준비물을 사갈 수 있는 것, 1년 내내 낡고 낡은 한 켤레의 신발로 커진 발을 더 이상 아프게 오르지 않도록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 차비가 없어서 30~40분 거리의 학교를 걸어가지 않는 것, 새 학기가 되어 새로 쓸 한 권의 공책과 연필을 준비하는 것, 추워질 때 찬 발을 가릴 수 있는 한 켤레의 양말과 속옷, 아플 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등이다.

빵과 영혼 함께 나누는 돌봄 필요

빈곤아동들의 경제적이고 물질적 나눔과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볼 때, 왜 우리사회는 이러한 아동의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바로 우리 주변의 아동들 일 수 있는 그들을 우리는 왜 손 내밀어 붙잡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더욱 마음 아픈 것은 IMF 이후 10년 동안 빈곤아동들의 마음,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불안과 우울지수가 일반아동보다 높고, 비행과 공격성 역시 일반아동들보다 심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가 미래 사회의 동력으로써 아동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돌봄(Care)을 함께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다. 빵과 영혼을 함께 나눌 때 아동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부터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며, 자신을 사랑하며 긍정적인 아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꿈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최근 부스레기사랑나눔회 아이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쓴 글을 읽어보았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무겁고 가슴 시리고 답답함이 더 많이 자리했다. 빈곤아동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기도 했다. 어른들인 우리가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주었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엄마가 없어서 등등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환경을 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의 글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더 지지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그 친구들의 강점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실에 대한 좌절이 아닌 희

망을 이야기 해주고 싶었다.

반면, 아이들은 엄마, 떨어져 있는 아빠, 아픈 할머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돈도 벌고 싶고, 훌륭한 요리사도 되고 싶고, 간호사도 되고 싶고, 멋진 헤어디자이너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떨어져 있는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 병도 낫게 해주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싶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같은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자신의 소원과 꿈을 아버지 없이 장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를 통해 얻었다는 친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델을 찾았다는 친구들의 글에서 아이들의 가능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엿보았다.

소원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장하구나, 정말 소중하구나’라며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몇몇 글에서는 재혼가정 아동들의 가슴 깊은 아픔도 만나보았다. 자신을 떳떳하게 알리고 싶고 엄마와 새엄마의 사이에서 내 마음속 두 갈래길로 아파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타내준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빈곤아동들이 어른들에게 말하는 그들의 꿈을 소개하면, 진솔하지만 아픔이 배어나는 그들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

“저의 소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할머니가 낫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헤어져 있는 동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소망은 아빠를 한 번 만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떳떳이 내 존재를 알리고 싶다.”

“엄마의 얼굴이 꽃처럼 피어날 그날!”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세요.”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이 말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채우는 것은 ‘한 아동’이며, 이 한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더욱이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도 기회조차도 접할 수 없는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족을 대신해서 사회와 이웃이 아동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손내밀어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UN의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나눔의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 뽀띠프랑스 전경

화목회와 함께 하는 친선 야유회

작은 프랑스 마을 '뽀띠프랑스' 를 가다

정리 : 호경아 주임 rubato@khd.or.kr

지난 9월 22일, 연구원 회원 40여명은 본원 소모임인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이재옥)의 주관으로 가을을 맞이하여 청평호반에 아름답게 자리잡은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 마을인 뽀띠프랑스로 친선 야유회를 다녀왔다.

작은 프랑스라는 뜻의 '뽀띠프랑스'는 프랑스의 실제 마을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 산비탈을 타고 하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유유히 흐르는 청평호가 마치 프랑스의 어느 시골마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뽀띠프랑스에서는 다양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150년 된 프랑스 고택을 고스란히 옮겨 놓아 프랑스의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는 주택전시관과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삶에 대한 기록과 작품으로 프랑스 문학을 접할 수 있는 생텍쥐페리기념관, 매 40분마다 200년 된 오르골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시연하는 오르골 하우스는 프랑스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프랑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전시 갤러리, 그리고 라이브 음악이 있는 야외 공연무대 등은 프랑스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향기를 체험할 수 있다. 3층짜리 전망대에 오르면 청평호와 호명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본원 회원이기도 한 한홍섭 뽀띠프랑스 회장은 "한국 안의 아름답고 작은 프랑스 마을을 만드는 것이 평생에 꿈꿔온 일이었는데, 20여 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완성했다"며 "어린왕자와 관련한 풍부한 자료와 함께 독특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식사를 스폰해주시신 화목회 회원님들을 비롯해 프랑스에서 직접 들어온 고급 와인을 스폰해주시신 한홍섭 회장님, 그리고 회원들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버스를 스폰해주시신 장찬기 해동재단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 뽀띠프랑스로 야유회를 떠난 본원 회원들



▶ 화목회의 스폰으로 진행된 만찬



▶ 200년 된 오르골의 연주를 듣고있는 회원들

두고 온 별, 우리의山河
강석진 초대전



▶ 고향의 가을 들판. 2008년

정리 : 민선아 과장 min@khdi.or.kr

전문경영인과 화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석진 작가(CEO컨설팅그룹 회장 / 前 CE코리아 회장)의 전시회를 관람하는 회원친 선행사가 지난 10월 1일 서울갤러리에서 있었다. 강 회장은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미 6회의 개인전 및 초대전과 약 100여 회의 국내외 그룹전과 기획전시의 경력을 지닌 중진 서양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잡지인 <월간 미술세계>의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강석진 초대전에는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작업한 우리나라의 전원풍경과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유화작품 50점, 그리고 세계의 여행지에서 스케치 한 수채화 작품 28점 등이 소개되었다.

강 회장은 전시장을 찾은 30여명의 회원들에게 그림을 그린 곳과 그곳의 사연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어 작가의 작품세계에 전이되는 새로운 경험을 전해주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그에게 있어 화가로서의 삶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진정한 프로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 상세하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강석진 화백



▶ 관람을 마치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두고 온 산하. 2004



▶ 작품 설명에 대해 경청하는 회원들

또 하나의 소중한 인생이야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월간 미술세계 백용현 발행인은 전시장을 찾은 회원들을 위하여 새롭게 작품집을 제작하여 선물로 주는 등 각별한 정성을 보여줘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 단풍길을 걸어가는 회원들



▶ 80년만에 열린 진부령 단풍길 걷기에 앞서



▶ 세계걷기운동본부 정준 사무총장이 코스 설명을 하고 있다

관동별곡 800리길 슬로우 걷기 축제 - 고성군 투어

80년만에 열린 진부령 단풍길과
관동별곡 800리길을 걷다

유혜선 SM컨설팅 대표

길은 자연이고 역사이고 삶이며 생각이자 휴식이다. 최근 슬로우라이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걷기를 주제로 한 옛길이 되살아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 10월 17일(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열린 '관동별곡 800리길 슬로우 걷기 축제'와 80년만에 일반에 공개되는 환상의 진부령 단풍길을 걷는 회원친선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세계걷기운동본부는 조선 중기 시인이자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노래한 관동팔경을 소재로 동해안 800리길(고성~삼척)을 세계적인 걷기 관광 코스로 만들었으며, 연구원은 공동주최 기관으로서 회원들을 위한 고성군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50여명의 회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한 이번 여행을 유혜선 SM컨설팅 대표의 기고문과 채바다 시인의 기고시로 소개한다.

- 편집자 주

한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진다. 어둑어둑한 가을의 이른 새벽이 제법 쌀쌀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배낭을 매고 어디론가 떠나는 기분이 싫지 않다. 인간개발연구원의 관동별곡 800리 와 진부령 단풍길을 간다. 뒤늦은 공부, 박사과정의 중간고사를 마치고 같이 강의를 듣는 동료와 함께 떠나는 가을 여행이 참 좋다. 아름다운 단풍길을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나는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진부령 고갯길을 걸으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무척 재미있었다. 80년만에 처음 개봉된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다. 늦은 점심, 지친 다리, 꼴찌로 돌아오니 글썽 밥이 없다고 한다. 눈물겹게 차디찬 김밥 한 덩이로 허기를 달래려는데 진행자의 친철서비스, 특별히 식당으로 모시겠다고 한다.

도시의 바로 옆동네 거리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차에 두 여자가

올라탔다. 근데 웬걸, 깊숙한 강원도 골짜기를 하염없이 달리는 것이 아닌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자원봉사자는 계속 친절하 농담을 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은 받은 북한이고 받은 남한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두 분이십니다. 요즘 두 군수께서 앞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신답니다.”

응? 그럼 우리를 지금 북한의 군수님께 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미국의 두 여기자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긴장과 불안이 엄습해 왔다.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서시던 이재옥 대표가 생각났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와 있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기 이를 데 없다. 한참 뒤에 도착한 조그만 식당에서의 구수한 두부청국장장을 맞본 뒤 모든 의심은 허기와 함께 사라진다. 정성껏 준비한 이번 첫 행사에서 밥도 못 먹었다는 우(遇)를 남길까봐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믿음과 불신’ 우리는 때로 순수함을 불신하고 아주 매끄럽게 잘 포장된 것들에는 쉽게 현혹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좀 더 세련되게 세상을 대하는 눈을 배워야 한다.

도착한 숙소는 금강산 콘도.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의 눈물과 아픔이 배어있는 바로 그 역사적 장소다. 분단민족의 회한과 열정이 섞여있는 곳에서 근사한 전야제의 밤을 보내고 다음

날 관동별곡의 아름다운 단풍길을 떠났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고성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세계적 트렌드 에코그린마케팅의 한 현장을 보는 것 같다. 워킹과 바이킹이 물결을 이룬다. 30년 동안 꿈꾸어 온 것들이 이제서야 꽃피는 것 같다고 말한다. 60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산악자전거를 타며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추억의 통기타가수 김세환의 인생이 더욱 돋보인다.

아! 가을이다. 너무 가을이다. 송강과 관동별곡의 스토리텔링 조각들이 여기 저기에서 툭툭 튀어나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 같다. 정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연이다. 천혜의 자연에 비해 언제나 부족한 것은 우리 인간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무색하게 할만큼 우리의 자연과 경치는 아름다웠다. 또 자랑스러웠다. 일상의 긴장이 해소되고 든든한 자신감이 살아나는 여행이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항상 나에게 고품을 달래준다. 지식과 정보가 고플 때, 소중한 분들과의 인맥과 대화가 고플 때, 그리고 휴식과 즐거움이 고플 때마다 언제나 가득 한 상 차려 내 놓는다. 강원도의 절경 관동별곡을 가슴에 담고 동해의 물회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득한 포만감으로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재배**

소동령 넘으며 (관동팔경 800리길에서)

채바다 시인 / 고대해양탐험가

진부령 흘러 마을 금강산 끝 즐기
어머니 품처럼 하늘아래 첫 동네
피망처럼 탐스런 인심도 곱더이다

5백년 송강 습결 관동별곡 800리길
옛 정취 물어 나는 고갯마루 여기로다
갈잎 秋色이 이토록 곱단 말인가

하늘 보려는데 백두대간 가로막고
만산홍엽 수려함에 팔 벌려 찍었으니
햇살마저 취하고 넘어가는 소동령

- 소동령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해발 400m 한양으로 가는 옛길
- 홀리 : 전국 최고의 피망 특산 재배지



▶ 휴식을 가지며 환담하는 회원들



▶ 18일 개막된 관동별곡 800리길 슬로우 걷기 축제



▶ 고성군 화진포동대박물관에서 가진항까지 걷어가는 회원들



▶ 가진항까지 코스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회원들



▶ 공항서비스평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

제1회 찾아가는 CEO교실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을 확인하라

정리 _ 김인선 smile@khd.or.kr

세계가 인정하는 인천국제공항. 해외 언론의 끊임 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 협의회(ACI) 주관 공항서비스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 영국 스카이트랙스 선정 '세계 최우수공항상' 등 국제적인 상을 석권하였다.

본원은 지난 10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의 초청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친선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본원이 기획한 '찾아가는 CEO교실'의 첫 번째 시간으로 28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인천공항의 세계적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편집자 주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찾아가는 CEO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회원들을 태운 버스는 지난 16일에 개통, 총 길이 21.4km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긴 인천대교를 지나 인천공항공사에 도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부지 5,606만㎡, 직원 850여명, 아웃소싱 포함해 3만5천여명이 함께 움직인다.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65% 증가된 70개 항공사와 60개국 170개 노선으로 세계의 도시를 연결, 5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하고 있다.

5년 연속 흑자경영

간단한 브리핑을 가진 후, 관제통신시설로 이동하였다. 22층, 높이 100m의 계류장 관제탑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관리 체제는 총 24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지며, 5~6명의 교대근무로 진행된다. 관제

탑의 최신 기술과 엄격한 통제에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인천국제공항전망대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남측유수지는 공사가 한창이다. 경쟁훈련원 및 수상레저스포츠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물류, 비즈니스, 레저 기능이 연계된 국제공항복합도시(Air-City) 건설이 추진 중이다. 부지 531만1천㎡, 사업규모 6조3,500억원이 투자되는 Air-City로 새로운 수요 창출 및 공항 허브화 촉진효과를 기대해 본다.

Air-City로 거듭나는 인천공항

새로운 사회공헌문화를 창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모형을 정립하고 있는 이채욱 사장과는 만남은 인천국제공항전망대에서 이루어졌다. 이채욱 사장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녹색성장 사업 추진 내용 및 활주로 구조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방문은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탑승의 단순한 공간 개념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이 있는 움직임, 그 이상의 가치를 알게 된 듯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채욱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이 처음 건

설될 당시,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는 등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공항서비스 4연패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어 인천국제공항이 더욱 탄탄해 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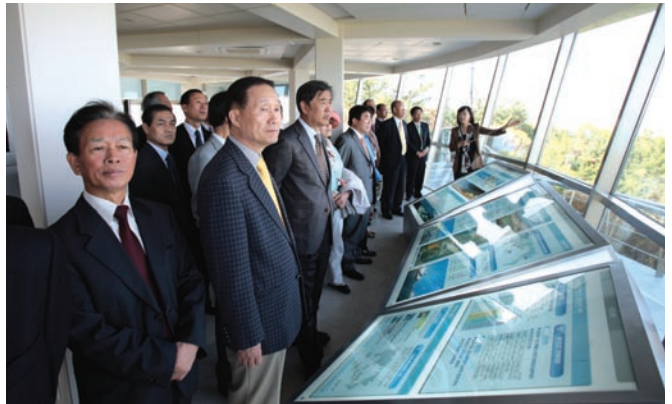
마지막까지 환한 미소로 배웅해주신 이채욱 사장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인천국제공항의 꿈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공항’, ‘전 세계인이 가보고 싶어하는 공항’, ‘전 세계 공항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는 공항’, ‘모든 공항가족이 행복감을 느끼는 공항’을 일궈내기를 기대해본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해동재단 장찬기 회장의 초청으로 일정에 없던 인천실버타운을 방문하였다. 인천실버타운은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해 바다와 공원이 접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친절할 설명과 내부시설 안내를 받으며 찾아가는 CEO교실, 인천국제공항공사 편을 마쳤다.

마지막까지 기념품과 좋은 시간을 아낌없이 선사해 준 이채욱 사장께 감사드리며, 일행을 대표해 선물을 준비한 홍승국 에버그린 MST 사장님과 장찬기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김재민**



▶ 공항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 공항전망대를 돌리보고 있는 회원들



▶ 찾아가는 CEO교실에 참여한 본원 회원들



▶ 공항관제탑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들

회원소식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코리아나미술관 관장)은 80세를



기념하여 경영인과 예술품 애호가로서 살아오면서 모아온 다양한 수집품과 애장품, 그리고 삶의 흔적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선보이는 '松坡의 수집이야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십 년 간 기록한 수첩, 수필원고, 종(bell)과 동전, 고지도 등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상옥 회장은 11월 2일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식에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만영 前 국립경주박물관장과 함께 문화훈장을 받는다.

- 전시명 : 松坡의 수집이야기
- 전시 기간 : 2009년 10월 26일(월) ~ 12월 26일(토)
- 전시 장소 : 코리아나미술관 Space*c (Tel. 02-547-9177)
- 전시시간 : 오전 10시~오후6시 (일요일은 휴관)

김용복 (서울)영동농장 명예회장이 (사)영랑기념사업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한다. 영랑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시문학의 대표작가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되었으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전남 강진 출신의 김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11월 2일 회장 이취임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신임 김용복 회장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일반행정학 수료,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등을 취득하였으며, 용복장학회 설립, 한사랑농촌문화재단 설립 등 사회 공헌에 지대한 영향을 하고 있다.

한국수입업협회(수석부의장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및 네덜란드, 포르투갈에 통상(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은 최근 한-EU FTA타결로 인해 처음으로 EU지역의 견실한 업체들과 현지 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 일 시 : 2009년 11월 14일(토)~23(월), 10일간
- 지 역 : 리스본(포르투갈), 카사블랑카(모로코), 암스텔담(네덜란드)
- 문 의 : 국제통상팀(Tel: 02-792-1581, 내선227)

공한수 빅드림앤섹세스 사장·시인은 지난 '제1회 관동별곡 800리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에 참가하여 관동팔경을 따라 걸으며

느낀 감흥을 표현한 시 '송강의 향기'가 강원도민일보사에 소개되었다.

손경식 대한민국서화원로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0월27일~31일 시립미술관 경희궁 제1전시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서예문인회 원로총연합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정남기 한국TOC경영아카데미(www.tockorea.org)원장은 지난 10월 22일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2009 한국TOC 경영컨퍼런스'에 본원 회원들을 초대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혁신의 새로운 대안 제약이론(TOC)의 컨퍼런스 국내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된 TOC의 사례와 추진 방법론이 소개되었다.

김복중 김복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수필 <퇴계선생과 이육사>로 '에세이스트' 9·10월호 신인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김복중 세무사는 현재 을지로3가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제동우회 서울지방 부회장,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사무국장,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 총무공이수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등 각종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문의처 : Tel. 02-2279-1357, 011-901-4512)

김영욱 농촌희망재단 이사장은 지난 9월<꿈의 텃은 밭이요, 밭의 텃은 숲이라>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김 이사장은 이 책에서 고전 속에 담긴 정치가와 지식인이 바라본 농업문제 해결방안과 한계를 서술하였다.

서진규 서진규희망연구소 소장은 세계적인 라디오 방송, World Talk Radio(www.worldtalkradio.com), Variety Channel의 MC로 발탁되었다. 지난 10월 29일(한국시간 오전 9시~10시)에 첫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토크쇼 타이틀은 "American Dream: The Sky Is The Limit"이다. 이 토크쇼는 세계로 방송되는 인기 프로로 한 달에 평균 50만명의 청취율을 유지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11시에는 생방송으로, 오후 10시~11시에는 재방송으로 진행되며,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는 세계속의 한국인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로 진행 된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전용찬 경희대학교 교수**의 장남 영우군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15일(일) 낮 12시
- 장소 : 마벨러스 3층 그랜드볼룸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4-1 Tel. 02-508-3001)

☞ **차영준 진덕건설(주) 회장**의 장녀 민숙양의 결혼식이 지난 9월 18일 삼성동 웨딩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이름	직함	창립기념일
(주)신성월드	권오범	사장	11월 1일
(주)그린라이퍼	김광탁	대표이사/회장	11월 1일
(주)세원	김병춘	회장	11월 2일
(주)비츠로테크	장순상	회장	11월 8일
(주)덕성	이해성	사장	11월10일
유림물산	안상일	회장	11월13일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11월15일
(주)주택문화사	이 심	회장	11월18일
에스엔케이폴리텍(주)	송재문	회장	11월19일
파르나스호텔	김동현	대표이사	11월22일
로터스힐	최만식	회장	11월26일
UCS Asset Consulting	김미라	대표세무사	11월27일
서울도시가스(주)	배경운	회장	11월28일
김복중세무회계사무소	김복중	대표세무사	12월 1일
(주)세스코	전순	회장	12월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호현	원장	12월 3일
원근건설	한의섭	회장	12월 7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10일
천일식품(주)	천석규	대표이사	12월14일
신명인터내쇼널(주)	최해규	회장	12월15일
(주)리-사이트	이종원	대표이사	12월16일
(주)성도GL	김상래	사장	12월17일
예성화랑	한영희	대표	12월17일
원풍물산(주)	이원기	회장	12월20일
바리의꿈	황광석	대표이사	12월28일
선진개발(주)	안민효	대표이사	12월29일

사무실이전 안내

마이에셋자산운용(주)(회장 김은숙)은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동화빌딩 7층
- 전화 : 02-3774-6100
- 팩스 : 02-3774-6119

(주)복리슨(사장 박창조)은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6-23번지
- 전화 : 02-470-2595
- 팩스 : 02-479-0538

신규회원 (● 법인회원 ■ 개인회원)



● 유철진 (주)티아이에스 회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5-5 제일빌딩 3층
- 전 화 : 02-517-6680
- 팩 스 : 02-517-6679
- 업 태 : 기술지능형 전자기기, 정보통신공사업
- 홈페이지 : www.tis21.com



■ 이상원 미산우드 대표이사

-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4번지 한진중공업 제4보세창터장내
- 전 화 : 032-584-3390
- 팩 스 : 032-584-3398
- 업 태 : 합판 및 보드류
- 홈페이지 : www.misanwood.co.kr
- 추천인 : 최병조 기업은행 본부장



■ 최두성 렌탈은행(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3-8 금강빌딩 1-2F
- 전 화 : 1588-3639
- 팩 스 : 02-552-0850
- 업 태 : 전시, 컨벤션, 이벤트관련 렌탈업
- 홈페이지 : www.rentalbank.co.kr

소모임소식

다락회(총무 이종원) 11월 정기모임을 안내 드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10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제이에스엔지니어링(대표 정창현) 사옥 (TEL.02-557-0505)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4번지 제이에스빌딩3층)
- 내 용 : 신입회장 선출 및 2010년 행사계획
- 문 의 : 총무 이종원 라-사이트 대표이사 (H.P.010-5306-8587)

책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 11월 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9일(월) 오후 6시30분
- 장 소 : 문학의 집 · 서울 산림문학회관 2층홀
- 내 용 : 1부 - 손광성 수필가의 수필쓰기 수업
2부 - 그룹별 글쓰기 토론
- 문 의 :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인경회 (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 11월 월례경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오전 5시40분
- 장 소 : 한양C.C (T.031-969-0810)
- 문 의 : 총무 이종원 라-사이트 대표이사 (H.P.010-5306-8587)

연구원소식

[회원친선행사]

**코리아나화장품 松坡 유상옥 회장
松坡의 수집이야기 전시회 관람**

코리아나화장품과 코리아나미술관을 이룬신 유상옥 회장의 喜壽를 맞이하여 40여 년간의 수집 인생을 회고하는 자리로 마련된 '松坡의 수집이야기' 전시회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영인과 예술품 애호가로서 살면서 모아오신 다양한 수집품과 애장품, 그리고 삶의 흔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10일(화) 오전 11시30분 (접수수 25명)
- 장 소 : 코리아나화장품 Space*c (Tel. 02-547-9177)
- 내 용 : 경영자교육팀 정성숙 과장 (070-8670-8434)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수첩 제작 - 윤희진 (주)다비육종 대표 협찬

윤희진 (주)다비육종 대표께서 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모용 수첩 제작을 협찬해주셨습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내용을 기록 및 정리하고 메모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았던 포켓용 수첩은 그동안 우창욱 (주)동명인쇄 사장께서 협찬해주셨으며, 윤희진 대표께서 뒤를 이어 협찬해주셔서 회원님들께 서비스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희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송년의 밤

2009년 한 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송년의 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회원님과 가족분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뜻 깊은 한 해의 마무리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22일(화) 오후 6시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소공동)

지자체소식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4주년 맞아

사회교육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9월 24일 14주년을 맞았다. 전남 장성군과 인간개발연구원이 개설한 장성



아카데미는 지난 1995년 9월15일 이근영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장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한번씩, 한번도 쉬지 않고 14년째 열리고 있다. 장성아카데미에는 매회 공무원과 주민 등 50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여만명이 강의를 들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지역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널리 알려지면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충북도의 청풍 아카데미, 대구의 달성 아카데미 등 80여개 자치단체에서 유사 강좌를 개설하는 등 아카데미 열풍을 몰고 왔다.

장성군은 이날 14주년 기념특강으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념 특강을 열었으며, 특강에 앞서 14주년을 기념하는 조촐한 행사도 함께 열었다.

지자체 초청강연 프로그램 주민들에 인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시민들의 의식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며,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경북의 각 시·군 지자체들의 명사초청 강의가 붐을 이루면서 호응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명칭의 강좌에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 관련 인사 등을 초청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주아카데미' 개설 3년만에 연인원 6만명 돌파

상주에는 상주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상주시 김연권(75) 옹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상주문화회관을 찾는다. 상주아카데미 강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 옹은 "전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강사로 초청돼 내용도 너무 재미있는 데다 유명인의 얼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했다. 상주아카데미는 상주시가 시민 의식함양과 사회교육 육구 충족을 위해 전국 유명인들을 초청해 매주 목요일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8월 10일 제회를 시작으로 8월 초 현재 121회째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 참석 인원만도 6만 700여명으로 매회 500여명 이상이 모였다.

'김천아카데미' 수준 높은 평생학습장 자리매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김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김천아카데미'는 횡수가 거듭될수록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4월 24일 방송인 전원주(70)씨가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이후 지금까지 각계각층 명사들이 차례로 초빙돼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털어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가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평생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 교양강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 '야은아카데미' 시민의식 향상에 한몫 톡톡

고려말 학자 길재 선생의 호(號) 야은을 따서 6월 30일 첫선을 보인 '야은아카데미' 강좌가 매달 구미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구미시평생교육원과 연구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새 지평을 열면서 시민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야은아카데미는 첫 강사로 삼미그룹 부회장을 그만둔 뒤 호텔 건습웨이터로 변신해 관심을 모았던 서상록 새하늘공원(주) 회장이 초청돼 '생각을 바꾸면 새 세상이 보인다'로 강연했다. 구미시평생교육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야은아카데미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 팩스 및 "좋은사람좋은세상"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과장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02-2203-3500 · 팩 스 : 02-2203-1974

소명의식에 대하여

세상과 역사를 바꾼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백성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의 발로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같은 경제대국을 이룩한 것도 백성들이 겪는 보릿고개를 없애야겠다는 소명의식의 결과였다.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한 목적도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게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명의식이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잘 헤아려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자세를 말한다.



박준봉 부원광학(주) 회장

소명의식, 역사를 바꾸는 힘

세종대왕은 임금의 자리에서 “백성이란 뭐냐, 백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나 목적에 맞는 것이냐?”고 고민했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항상 백성을 하늘이 자신에게 준 천민(天民)이라고 생각하고, 이 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 결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고,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

백성들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북쪽으로 북진을 개척하여 북방을 잠재웠고, 남쪽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구의 준동을 막았다.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생각해서 <농사직설>을 펴내어 오늘날로 하면 과학 영농을 하게 하였고, 천문도,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등을 발명하여 당시 세계에서 과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랏말씀이 중국과 다른데도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글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든다고 했다. 반포하기 3년 전에는 한글의 실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미리 만들었고, 언문청을 설치하여 한글연구를 계속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말단 기능직 공무원 시험과목에 한글을 포함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결국 세종대왕의 소명의식이 이런 큰일을 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며 불렀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겨워지고 가슴이 메어오는 감동을 느낀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박정희 대통령의 투철한 소명의식의 덕택이라고 믿는다.

소명의식은 사회 곳곳에서 발현되는 것

소명의식은 국가를 경영하는 큰일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심훈 선생의 상록수에 등장하는 동혁이라는 청년과 최용순이라는 젊은 커플이 몽매한 농촌의 농민계몽을 위해 바치는 열정은 소설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1930년대 당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소명의식이 아니겠는가. 근대 산업화 개발 초창기에 공단지역에서 있었던 대학생들의 야간학교 교육 또한 소명의식의 발로라고 보고 싶다.

한때 세계가 주목했던 일본의 마쓰시다(松下) 그룹을 이룩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생각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들고 가야 할 말씀이라 소개한다. 그가 20대 후반에 직원 5~6명과 함께 당시로는 일본 최초로 전기소켓을 개발해서 시중에 출시할 때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본국민이 수돗물을 쓰듯이 쉽게, 그리고 싸게 쓰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이런 높은 뜻이 결국 일본 최고의 기업,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것이다.

그가 성공비결을 소개한 내용이 감동적이다.

“나는 소학교 4학년의 학력밖에 없어서 열심히 공부 할 수 있었다. 나는 20대에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해서 이렇게 건강하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런 대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그가 이런 높은 생각을 가진 것도 결국 높은 소명의식의 결과이다.

기업인의 소명의식

필자가 24년간 몸담았던 공직에서 기업으로 옮겨 앉은 것은 82년 봄이다. 그 시기 중소 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종업원 복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작업 현장에서 기름 묻은 손을 씻고 퇴근하면 포장마차에서 소주잔 기울이며 나누는 무용담이 이야기거리의 대부분이었다.

적어도 필자가 공직에 있을 때 경험한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승진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 사회와는 달랐다. 젊은이의 자기계발 노력도 부족했고, 기업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때 필자는 소위 소명의식의 발로라고 할까. ‘내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역시 길은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영어교육, 일어교육 등 어학교육도 실시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회사 분위기는 생동감을 얻어갔고, 87년을 전후한 격렬한 노사쟁의가 한창일 때 그 물결을 비켜갈 수 있었다.

91년, 내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는 생각에 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국내외 현장 견학은 물론 1년에 한 두 차례 책 선물도 빠트리지 않았다. 지금도 당시 직원들이 선물 받은 책을 읽고 보내온 독후감을 읽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곤 한다.

미래지향적인 광학산업에 소명의식 가져야

광학산업의 언저리에 들어와 크게 기여한 일 없이 30년이 다 되어 간다. 산업현장에서 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광학산업이 전자,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진다는 점이다. 일본의 산업을 선도해온 CANON, NIKON, FUJINON, OLYMPUS 등의 간판기술이 광학기술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늘 부러울 뿐이다.

크게는 우주과학에서 작게는 미세한 현미경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근저에 광학기술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망원경,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카메라, 복사기로 기록 전송하며, 아울러 감시하고 자동화하는데 광학제품이 기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에서 편리함을 누리게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자, 철강, 자동차 산업에 비해 규모 면에서 떨어지는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광학산업이 로봇, 바이오, 그린산업 등 소위 첨단산업에 요소 기술로 기여하는 것에서나 전자,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의 핵심부품으로서 미치는 영향력 등을 본다면 불타는 열정을 쏟아 불만한 가치있는 분야이다. 광학산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에게 이 분야야말로 소명의식과 야망을 가지고 젊음을 바쳐 도전해 불만한 가치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70년대에 대한광학이 육성한 사람들, 80~90년대 삼성정밀(삼성테크윈) 이 키운 사람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오시스템(한국광학) 등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광학산업의 여러 분야에 진출해 이 나라 광학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잡아주고 끌어줘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젊은 인재가 육성되고 있는 것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할 일이다.

문제는 광학산업이라는 분야가 독자적으로 커나갈 영역도 많지만 IT산업, 전자산업 등 다른 기술산업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기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서두에 소명의식을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중요한 기술영역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이 나라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실기(失機)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특히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관서, 첨단산업을 견인해 가고 있는 대기업, 젊은 인재를 육성해 가고 있는 교육기관 등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광학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KHDI**





● 제637회 전남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4주년 기념특강'
2009년 9월 24일(목)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경제비전

정동영 국회의원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이청)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지난 9월로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의 전통을 이어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14주년 기념특강에서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경제비전"을 주제로 강연해주신 정동영 의원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미국언론인협회(NPC)에서 연설했는데,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다.

4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표들과 남북한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6.25를 끝내자는 '9.19합의문'을 만들었다.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직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휴전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이 비극을 아직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한국의 주도하에 이끌어낸 9.19합의문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첫째, 북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둘째, 미

국은 북한을 자주국가로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해 일본을 포함한 관계를 정상화한다. 셋째,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넷째,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당사국간에 시작한다.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다.

이 네 나라가 6.25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9월 19일의 합의 내용이다. 이 합의문은 미국과 중국, 북한이 만들 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라 의미가 크다. 통일부 장관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문서가 만들어지기 3개월 전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6자회담에 나와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6자회담이 북한에 손해 될 것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동등한 자격으로 대한다는 약속을 하면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했다. 곧바로 워싱턴으로 가서 북한의 뜻을 전달하고 협상에 나와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적대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그 결과 8월에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9월에 합의된 것이 북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고 수교하는 한편 6.25를 종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합의는 12시간만에 깨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미국에서 북한이 엄청난 양의 미국 달러 지폐를 위조하고 있으며, 마약을 판매한 돈을 마카오은행에 예치했다며 조사해야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사실 미국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악당으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북한이 있어야 미국의 군산복합체, 즉 무기산업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북미간 정상회담만이 합의문 이행할 수 있는 길

미국언론인협회에서 연설한 내용이 9.19합의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라고 했다. 둘이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5월 북경에서 장쩌민 주석을 만났고,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로 뒤 7월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이어서 미국을 만날 생각으로 10월에 조명록을 워싱턴에 보냈고, 클린턴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냈다. 그 뒤 11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 때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클린턴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임기가 1년만 더 있었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9년이 흘렀다. 9년 전에 가능했던 일기에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실무적으로 발표문까지 만들어 놓고 사인만 하는 의전적 정상회담이다. 다른 하나는 돌파형 정상

회담이다.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상끼리 하는 회담으로 남북한의 6.15 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모두 현장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부와 철학이 다르다.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교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면서 적대국가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부시 정부를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도 1980년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지만 끊임없이 소련과 대화했고 결과적으로 소련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대선 때 했다.

지난 8월 4일, 북미간에 처음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만났다. 당시 평양에 가겠다는 미국의 거물들은 많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클린턴을 원했다. 9년 전의 기회를 반복 상기고자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린턴이 최대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김정일 위원장도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

북한을 다녀온 클린턴은 8월 19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 이 역시 대화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김정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하는 것이었다. 결국 핵심은 상상하고 돌파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상상하고 돌파하는 것이 우리의 화두인데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통일시대를 준비할 개성공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단지 우리는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전쟁중단 상태에서 수십년을 살다 보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고 있다. 독일은 1945년 8월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은 이미 끝났다.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콜 수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 아카데미 14주년 기념식에 모인 관계자들



▶ 장성아카데미는 14년간 3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역사가 우리 눈앞에 기회의 문을 조금 열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뛰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거머쥐었다”고 했다.

독일은 1970년에 동서독 최초의 정상회담 이후 통일까지 20년이 걸렸다. 20년 동안 한 일이 화해와 협력이었다. ‘접촉을 통한 변화’를 부제로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 바르가 내게 한 말이 독일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다. 이 사업을 밀고 가면 평화적인 통일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제품이 생산되었다.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개성공단에 공장을 만들고 6개월 내에 물건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 법에 적국에 미국의 원천기술이 10% 이상 들어가 있는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의 핵심기술이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결국 미국이 도와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나서 개성이 어떤 곳인지 설득했다. 개성은 서울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포진지에서 포를 쏘면 1~2분 후에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 그래서 늘 한미연합사가 첨단장비를 동원해 북한군의 사전동향을 살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 포진지 2천만평을 남한에 내준다는데 안갈 이유가 군사적으로 없다고 얘기했다.

바로 다음날 럼스펠드가 부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사업을 보고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곧바로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했고, 3개월 만에 냄비공장이 가동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4년만에 106개 공장에서 4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독일 사람들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남북한 경제공동체시대 구상해야

평화가 보장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은 경제공동체로 가야 한다.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가 경제공동체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 한 번 큰 발전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자본은 있다. 그러나 땅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인건비도 숙련공은 선진국만큼 비싸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다. 우리는 광물자원의 97%를 수입하는데, 통일이 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자원인데, 우리와 말이 통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1200만명이라는 근면한 노동력이 있다. 한 달에 5~7만원이면 가능한 노동력이다. 토지가격 또한 평당 1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불안’인데, 이것만 해소된다면 개성은 우리에게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9.19합의문으로 돌아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중국, 베트남, 북한 등 3개의 공산국가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시장경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돈, 사람, 물자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으면 된다. 정치적 통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Win-Win전략이다.

북미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 그 다음 미국이 승인하면 북한이 IMF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ADB와 세계은행 가입도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북한에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사판이 북한이 된다. 이런 시대가 상상이 아니라 오고 있다.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돌파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간 대화의 장 복원이 시급한 과제

김정일 위원장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내년 중에는 북미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 3월에 핵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핵무기를 가진 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핵을 줄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5월에는 핵확산금지(NPT)체제를 검토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 때 오바마 대통령은 업적을 내고 싶어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내려놓고 관계 정상화를 하자고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하자고 했다. ‘큰 거래’는 일괄타결하자는 것으로 9.19합의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9.19합의문에는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모든 보따리가 들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보따리를 바꿔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총리회담을 제안하면 된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해 11월에는 남북한의 총리가 서울에서 회담을 통해 6개월 내에 평양에서 남북총리회담을 하자고 합의했다. 이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 총리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대화가 복원되면서 우리의 역할도 생겨난다. 독일의 콜 수상이 기회의 문이 약간 열렸을 때 그 사이를 뛰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어서서 운명으로 문을 밀어야 한다. 그래서 북미간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하고,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로 나와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도 팔 수 있게 개성공단을 확대하자고 해야 한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이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다시 한 번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김기현**

아름다운 기업가정신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975년 2월 5일에 창설된 인간개발연구원은 확실한 믿음과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출발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과 아름다운 국민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가정신과 가치창조의 열정을 지닌 경영철학과 경영윤리가 확립된 기업가와 경영자(CEO)들이 나와서 좋은 세계(Better World), 좋은 나라(Better Korea)를 만들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과 상상력, 그리고 확신이 연구원의 창설과 함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설하는 동기가 됐다.

연구원의 창설에 함께 한 기업가, 경영자, 그리고 학계 지도자들의 뜻을 모아 연구원 창설의 실천력과 열정을 발휘케 되는데는 ‘아름다운 기업가정신’을 가진 훌륭한 기업가 한 분이 있었다.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진지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성공철학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부호이자 SMI(1960)와 LMI(1964)를 창설, 자기개발교육산업의 선구자가 된 폴 J. 마이어(Paul J. Meyer)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독일계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이민 2세로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어린 시절 훌륭한 어머니와 초등학교 1~3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참사랑 교육을 받았으며, 16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인생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벤치마킹하며 자랐다.

그가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것은 ‘사람’과 ‘말’에 담긴 보석 같은 진리였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끌어내는 교육(말)의 중요함을 깨닫고 여기에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기업가로 대성했다.

2009년이 저물어 가는 지난 10월 26일, 필자를 슬프게 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폴 마이어 회장의 서거 소식이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인터넷을 타고 날아온 것이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그는 ‘죽으면서 돈을 남기고 간 부자는 부끄럽게 죽은 것이다’라는 앤드류 카네기의 말에 공감하고 70세를 맞은 이후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을 세계적 부호로 만들어 준 하나님께 넘기기로 하고 여러 자선기관을 세우고 법적인 정리를 마쳤다.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의 소유 재산이 얼마가 되든지 자신이 세운 자선기관에 환원하도록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9세에 생명보험 세일즈맨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알고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던 그가 81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60여년을 비즈니스맨으로 살면서 ‘사람’과 ‘말’에 담긴 인생철학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창안해서 만들어 낸 인간을 변화시키는 Self-Improvement 프로그램

은 그 판매액이 30억불을 넘었다. 판매액의 80%가 미국 밖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그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자유주의 선진국가들에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8월 2일, 텍사스주 웨이코시 트리뷴헤럴드의 대기자 Cindy V. Gulp와 가진 그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 기사는 ‘아름다운 기업가정신’을 가득 담고 있다. 그의 지인이자 한 자선기관의 CEO가 마이어에게 남긴 말인데, 전 세계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들이 같이 간직하고 교훈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He has changed thousands and thousands of lives for the better”, “I don't think people have an idea of a fraction of what he does for the community. He helps so many people in so many ways that people will never know... I am constantly surprised by him and his incredible devotion to the Lord and his energy and his desire to help people.”

매스컴을 통해 요란하게 알려진 기부자들과 달리 조용하게 기부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로서 그만큼 기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Melennan County는 그가 1개월에 20만불 이상을 기부하며 세운 곳으로 빌딩들이 즐비하며, 그가 영감을 주어 일으킨 무수한 기업들과 사회사업 기관들이 많이 있다.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웨이코시에 있는 베일로드대학 마이어광장(그가 기부한 대학발전기금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됨)에서 치러질 장례식장에서는 그가 일생토록 간직한 인생의 지침서가 조사로 읽혀질 것이다.

Do all the good you can. By all the means you can. In all the ways you can. In all the places you can, at all the times you can. To all the people you can, as long as ever you can.

마이어 회장이 우리 CEO들에게 남긴 값진 교훈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60여년간 기업가로 살면서 176개의 기업을 세웠지만 80%는 실패하고 20%의 기업만이 성공했다. 결국 어떤 위기와 아픔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다.

2009년을 보내면 연구원이 35주년을 맞게 된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원의 35년사를 이룩해왔다. 여기에 폴 마이어의 아름다운 기업가정신이 담긴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세계의 평화(Peace), 인류의 번영(Prosperity), 인간의 행복(Happiness)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연구원의 재 창립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면서 2009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자 한다.

35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정목일 수필가,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팔

월 초순에 거목들이 사는 나라에 갔다. 1m78cm의 키다리로 살아온 나는 거대한 나무들의 세상에서 갑자기 난쟁이가 돼버렸다.

상상하기 힘든 거목들이다. 가까이 서 있어도 전체를 바라볼 수가 없다. 사진을 찍으려 해도 일부분만 포착될 뿐이다. 거목들의 일생은 눈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수천 년의 침묵으로 얻어낸 명상의 말과 영혼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눈이 시린 푸른 하늘로 수직으로 치솟은 나무들을 우러러 볼뿐이다.

거목들이 사는 곳은 미국 서부에 있는 세코이아 국립공원(SEQUOIA NATIONAL PARK)이다. 이 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유명한 숲은 자이언트 세코이아 그로브(Giant Forest Sequoia Grove)라 한다. 세계 최대목(最大木)으로 알려진 셔먼장군나무(General Sherman)가 있는 곳으로 간다.

셔먼장군나무 혹은 제너럴 셔먼트리라는 수령 2천2백년, 나무높이가 82.5m나 된다. 밑둥치 직경이 11m, 높이 54m에서의 직경 4.2m이다. 이 나무로 방 5개짜리 목조주택 40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거목들이 서 있는 숲에서 나무와 함께 숨을 쉬니 가슴이 설렌다. 나무들의 위용에 탄복할 뿐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수사도 감탄도 함부로 늘어놓을 수 없다. '만물의 영장'이란 자부심 따위는 허세에 불과하다. 여기 있는 세코이아 나무들이야말로 땅위의 성자이다. 철학이니, 종교니, 사상이니 하는 것도 거목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지고, 눈에서 경이가 열린다.

나무 말고 어느 생명체가 2천년 넘게 하늘과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거목들은 침묵할 뿐 말하지 않는다. 보는 것만으로 장엄하다. 일체의 장식이나 과장도 없다.

일직선의 직립(直立), 조금도 기울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하늘로 향해 척추를 곧추 세우고 있다. 옆으로 가지를 뻗어내려 풍성한 모양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한 일자(一字) 한 획이 땅에서 하늘로 치켜 올랐을 뿐이다. 단순, 간결의 힘과 아름다움이 넘쳐흐른다.

수관이 수려한 느티나무, 단풍이 화려한 은행나무, 곡선이 오묘한 소나무와는 다르다. 허장성세를 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린 자세이다. 일직선의 비상이 있을 뿐이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북부에 위치한다. 적설량이 많은 고산에 살아남자면 몇 가지 생존조건이 필요하다. 키가 커야 하고, 곧아야 하며, 가지가 적고 부드러운야 한다. 키가 백 미터에 가까워도 가지는 적을 뿐더러 짧고 볼륨이 없다. 세코이아 거목들은 생존조건

에 따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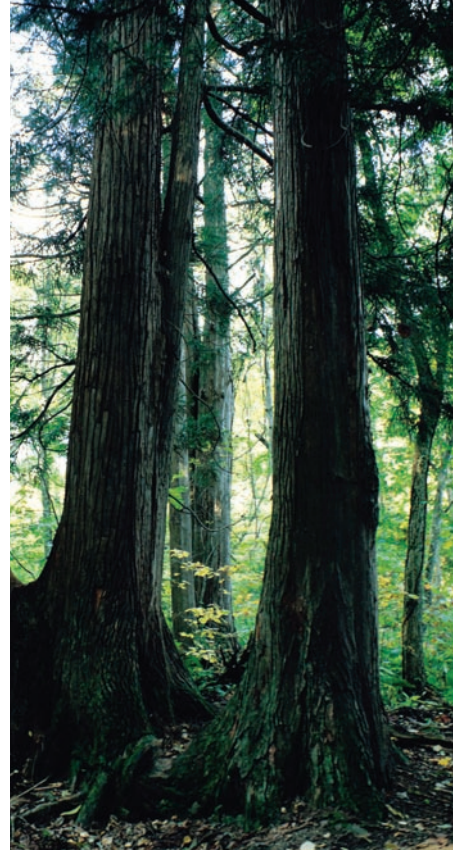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의 탄생보다 더 오래 전에 나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음은 경이가 아니고 무엇이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거목들 앞에 꿇어 앉는다. 2천년 이상 실존만큼 위대한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신비한 사실이 또 있을까.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이지만 마음이 영원에 닿은 하늘 나무이다.

거대한 독립체였고, 나무 하나씩이 영원한 생명의 공화국이다. 나는 이 지상 최고의 원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고지대에 있는 세코이아공원은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세코이아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도 않는다. 우람한 키와 체구를 가진 이 나무들의 뿌리는 의외로 땅에 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들끼리 흙속에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것이 세코이아 나무가 강풍을 이겨내고 장수하게 된 비결이다. 강풍, 가뭄, 홍수, 산불을 겪으며 고통과 시련을 견뎌낸 단련과 인내의 결과로 2천년 이상의 삶을 이은 거목이 된 것이다.

절제, 간결, 무욕, 집중력으로 지어 올린 거대한 생명의 탑 앞에서 어떤 전설과 신화도 무색해지는 것을 느낀다. 2천년 수령의 거목들은 살아있는 역사이다. 역사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무들은 일년에 한 줄 씩 자신의 삶을 나이테에 기록한다. 2천여 개의 나이테에 2천년의 햇살, 바람, 물의 말, 풀벌레와 새소리, 하늘과 땅과 별의 이야기가 수놓아져 있다. 생존 그 자체가 역사인 거목을 우러러본다.

나도 한 그루 나무가 되고 싶다. 백년도 못 미칠 수령을 가질 테이지만, 일생의 체험과 느낌을 목리문(木理紋)에 담아두고 싶다. **정목일**



정목일 이사장

1945년 생으로 75년 '월간문학'에 수필 당선, 76년 '현대문학'에 수필이 천료되어 등단했다. 경남신문 편집국장, 경남문화관 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협 수필분과 회장, 창신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수필집으로 '별이 되어 풀꽃이 되어', '만나면서 떠나면서', '마음꽃 피우기', '달이 있는 바다' '모래밭에 쓴 수필' 등이 있다. 현대수필문학상, 한국문학상, 조경희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무한제어 메카니즘 직선운동 시스템

**SAMICK
THK
LM SYSTEM**

SAMICK THK since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1

삼익THK(주)의 정신은
고객만족으로 연결되는 *Hot-Line* 입니다.

<http://www.samickthk.co.kr>

항상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삼익!

삼익은 전 생산공정 하나 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최첨단 신기술로 귀사의 꿈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삼익THK주식회사
SAMICK THK CO., LTD. 

영업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금강타워 16층)
TEL : (02)3454-0811 FAX : (02)3454-0792

전국대표전화 : 1588-9931

본 사 | TEL : (053)665-7000 FAX : (053)581-9933 인천영업팀 | TEL : (032)812-9354 FAX : (032)812-9352 안성영업팀 | TEL : (031)650-3600 FAX : (031)655-7740
수원영업팀 | TEL : (031)899-9500 FAX : (031)286-2535 천안영업팀 | TEL : (041)621-0170 FAX : (041)621-0171 대구영업팀 | TEL : (053)581-3421 FAX : (053)581-3420
대전영업팀 | TEL : (042)934-2308 FAX : (042)934-2307 구미영업팀 | TEL : (054)471-2761 FAX : (054)471-2763 광주영업팀 | TEL : (062)251-4782 FAX : (062)268-8494
창원영업팀 | TEL : (055)285-8472 FAX : (055)285-8475 부산영업팀 | TEL : (051)329-8555 FAX : (051)329-8550 울산영업팀 | TEL : (052)273-9941 FAX : (052)273-9820



FILAGOLF